

대학도서관 전거제어 현황분석을 통한 전거제어 방안 모색*

A Study on Direction of Authority Control by Surveying the Authority Control in University Libraries

이 미 화(Mihwa Lee)**

< 목 차 >

I. 서론	기관 현황 분석
II. 전거제어 관련 동향	IV. 기관 및 이용자 중심의 전거제어 방안
III. 대학도서관 전거데이터 구축 및 미구축	V.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전거제어 현황 조사와 국제적인 전거제어 개념모델 및 가상국제전거파일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전거제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현황 조사는 국내 대학도서관 중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기관과 구축하지 않는 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도서관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해온 전거형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미구축기관에서는 전거데이터 구축을 위해 전거관련 목록규칙과 국가적인 협력체계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현황 조사와 국제목록원칙 2009, FRAD 개념모델, VIAF에서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전거형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전거제어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가의 전거규칙을 바탕으로 전거제어를 실시하되, 기관의 전거규칙에 따라 선호하는 전거형을 인정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중심으로 전거형을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전거제어 규칙과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개별 도서관에서는 자관의 규칙에 따라 전거형과 이형을 생성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전거제어를 위해 전거데이터 기술요소가 추가적으로 입력되어야 하며, 전거형간, 전거형과 이형간의 다양한 관계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개별도서관, 이용자가 선호하는 전거형접근점을 수용하는 전거제어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키워드: 전거제어, 전거통제, 가상국제전거파일, 전거데이터의 기능요건, 제어형접근점, 전거형, 이형, 국제목록원칙 2009, 이용자 중심의 전거제어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the new method for authority control in Korea by surveying status of authority control in university libraries and by analyzing international conceptual model of authority control and VIAF. 2 kinds of survey were done: one is for libraries having authority records and the other is for libraries not having authority records. In survey result, libraries that have authority records want to sustain their own forms of authorized access points and libraries that have no authority records want the rules related to authority and the national cooperative authority control system to be constructed. Based on ICP 2009, FRAD conceptual model, VIAF and this survey result, new authority control is to respect the diversity of forms of the authorized access points. New authority control is to permit authority records that reflect provision for linguistic or cultural environments of each library, confirming to the national cataloging code. Therefore, authorized access points will be displayed according to user preferred forms. For this new authority control, it is needed to make national authority rule, to build the authority records according to library's own rules, and to construct the cooperative authority control system. Also for user preferred authority control, it is needed to describe detailed elements for authority control and relation data between authorized access points, between authorized access points and variant forms.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suggest new authority control that could accept all kinds of authorized access points preferred by nation, libraries, and users.

Keywords: Authority control, VIAF, FRAD, Controlled access point, Authorized access point, Variant form, ICP 2009, User centered authority control

* 2012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도서관역량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임.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조교수(leemh@kongju.ac.kr)

• 접수일: 2012년 8월 13일 • 최종심사일: 2012년 9월 13일 • 최종심사일: 2012년 9월 21일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일반적으로 목록데이터 구축시 구현형 단위로 서지데이터를 입력하고,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경우 전거레코드를 검색하여 접근점을 일치시키고 필요시 참조형을 기술한다. 이 과정에서 구축된 전거데이터는 검색 재현율을 높이고, 여러 이형에 대해 이용자에게 설명을 제공하며, 목록 간의 항해가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게 하고, 이름과 표제의 제어된 형식으로 저작을 집중시키는 등 온라인목록 검색에 많은 영향을 준다. 전거데이터의 미구축은 검색에서 재현율과 정확률을 낮추는데 예를 들어, 차세대온라인목록의 기능인 패싯네비게이션으로 재검색할 때 전거데이터가 정확히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동일 저자임에도 다른 저자명으로 나열되거나, 다른 저자임에도 동형으로 묶여져 검색 성능을 낮춘다. 따라서 도서관자원과 이용자를 연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온라인목록 검색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서지데이터 뿐만 아니라 전거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내 전거데이터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도서관 및 대규모 대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전거데이터가 거의 구축되지 않고, 국가적 협력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국가적인 제반 규칙이 없어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도서관마다 전거형의 선정과 형식, 기술내용이 표준화되지 않았다. 셋째, 전거제어 방식에 관해 전통적인 전거제어방식과 접근점제어방식의 주장이 상반되어 있다. 검색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전거형과 이형의 구분은 불필요할 수 있으나 도서관 환경에서 전거형과 이형을 구별하지 않고 접근점만으로 전거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러한 규칙의 부재 및 이론적 논쟁은 전거데이터의 구축기관 뿐만 아니라 미구축기관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전거데이터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거데이터 구축시 문제점과 미구축의 원인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거제어와 관련된 이론적 기반으로 국제목록원칙 2009, FRAD 개념모델, 가상국제전거파일(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s, 이하 VIAF)와 같은 원칙과 모델을 바탕으로 한 전거제어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거데이터 구축 및 미구축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목록원칙 2009, FRAD 개념모델, 가상국제전거파일의 전거제어 방향을 분석하여 국내 전거제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헌조사에서는 전거제어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과 이론을 살펴보았고, 설문조사는 도서관 현장의 전거레코드 구축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전거레코드 구축기관과 전거레코드를 구축하지 않는 기관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구축기관은 KERIS종합목록표준화분과위원회 소속 대학도서관 중 전거레코드를 구축하는 4개 기관을 선정하고, 입력포맷, 전거대상, 자료유형, 전거데이터 구축건수(전거표목), 전거레코드 생성기준, 참조 정보

원, 서지레코드와 연계, 표목, 이형, 추가기술정보, 표목형식, 이형의 대상, 검색에서 활용, 전거 관련 문제점을 설문하였다. 구축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거레코드의 구축 현황과 표목의 형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거레코드를 구축하지 않는 장서규모 50만권 이상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는 전자메일 및 인편으로 30개의 설문을 배부하였으며, 28개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를 통해 전거데이터 미구축의 원인과 앞으로 전거데이터 구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조건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거데이터 구축기관과 미구축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거관련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국내에 맞는 전거제어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2. 선행연구

전거제어와 관련된 연구는 전거제어 현황, 전거제어를 위한 협력모델, 새로운 전거제어 방향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거제어 현황에 관한 연구로 Naito는 중국, 일본, 한국의 국가 전거데이터를 대상으로 동일인명을 비교하였는데 3개국 모두 그 나라의 언어 환경에 맞는 전거표목을 사용하였다.¹⁾ Burke & Shorten은 미국내 대규모 도서관과 소규모 도서관의 전거데이터 구축의 특징을 비교하였다.²⁾ Mak은 미시건주립대학교에서 온라인자원에 대한 전거데이터 미구축이 온라인목록 검색에서 집중기능을 떨어지게 하여 검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디지털자원의 전거데이터를 구축하였다.³⁾

전거제어 관련 국내 현황으로 도태현은 목록의 자동화 환경에서 전거통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전거통제의 필요성과 전거표목의 일관성 유지를 강조하였다.⁴⁾ 최달현은 분담목록하에서 전거통제를 위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⁵⁾ 윤정옥은 일본 단체명과 일본 학술지에 관한 국내 전거데이터 구축 현황을 바탕으로 검색의 문제를 제기하였다.⁶⁾ 박선희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전거파일 구축현황을 설명하였는데 전거포맷으로 USMARC을 사용하고,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총서명, 통일서명, 주제명(인명, 단체 주제명)을 대상으로 전거데이터를 구축하였다.⁷⁾ 기민도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내인명, 중국인명, 일본인명의 전거데이터 구축시 표목에 관해 기술하였다.⁸⁾

1) E. Naito, "Names of the far east: Japanese, Chinese, and Korean authority control," *CCQ* Vol.38, No.3-4(2004), pp.251-268.

2) S. K Burke & J. Shorten, "Name authority work today: comparison of types of academic libraries," *LRTS*, Vol.54, No.1(2009), pp.4-20.

3) L. Mak, "Issues of personal name authority control in a retrospective cataloging project,"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Vol.28(2011), pp.160-168.

4) 도태현, "자동화 목록에서의 전거통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도서관학논집, 제18권(1991, 1), pp.217-243.

5) 최달현, "분담목록에서의 전거통제와 전거파일 공유,"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도서관학논집, 제25권(1997, 1), pp.257-293.

6) 윤정옥, "디지털 정보시대의 전거통제(2) : 국내 목록 데이터 베이스의 일본 학술지명과 단체명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1, 12), pp.161-175.

7) 박선희, "대학도서관 전거파일 구축현황: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국가전거파일의 협력적 구축방안(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세미나, 2006), pp.83-95.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3호)

선거제어를 위한 국내 협력모델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오동근은 국내 선거제어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선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특히 표목부를 갖춘 편목규칙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문자와 표기법의 문제, 동명이인을 식별하기 위한 서브필드의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⁹⁾ 이지원, 김태수는 접근점제어를 위한 국가적인 협력 모형을 전제로, SRU 프로토콜을 이용해 구축된 국가 접근점제어 레코드를 자관의 서지레코드와 바로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⁰⁾ 심경은 공공도서관의 선거제어의 방안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어의 필요성과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¹¹⁾

전통적인 선거제어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선거제어의 방향에 관한 연구로 최석두는 선거제어의 방식은 적용되어야 하지만 선거형을 채택하지 않고도 선거제어가 가능한 무선거시스템을 제안하였다.¹²⁾ 김태수는 패키지구조에 의한 선거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는데 표준형식의 표목을 선정하지 않고도 상이한 형식의 표목 간을 연결하여, 어떤 형식에서도 검색이 가능한 새로운 선거시스템의 개발을 제시하였다.¹³⁾ 안영희, 이성숙는 선거제어방식으로 FRAD를 설명하고, RDA, MARC21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선거제어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¹⁴⁾ 이석형, 광승진은 FRAD를 학술지 논문의 선거데이터 구축에 활용하기 위해 저자, 단체명, 학술지명의 선거데이터 구조를 제안하였다.¹⁵⁾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 선거데이터는 대규모 대학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나 선거관련 규칙이 없어 형식이 통일화되지 않았다. 둘째, 선거관련 협력모델과 새로운 선거의 방향은 제시되었으나 실질적인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선거형과 이형을 두는 전통적인 방식과 접근점제어 방식 중에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선거제어 방안 모색이 더욱 어렵다.

이에 본고는 국제목록규칙 2009 및 FRAD, VIAF을 바탕으로 도서관의 현행 선거구축을 존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전통적인 선거제어방식과 접근점제어방식을 상호 보완하고자 하였다.

-
- 8) 기민도, “국립중앙도서관 선거파일 구축 현황과 계획,” 국가선거파일의 협력적 구축방안(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세미나, 2006), pp.99-116.
 - 9) 오동근, “한국형 선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4호(2000, 12), pp.21-47.
 - 10) 이지원, 김태수, “SRU 프로토콜을 이용한 접근점제어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2005, 3), pp.229-248.
 - 11) 심경, “국내 공공도서관의 인명 선거제어의 현황 및 발전 방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4호(2006, 12), pp.221-244.
 - 12) 최석두, “무선거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5권(1993, 12), pp.233-264.
 - 13) 김태수, “선거제어시스템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회(1998), pp.1-12.
 - 14) 안영희, 이성숙, “IFLA FRAD 모형이 관련 표준에 미친 영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6권, 제1호(2009), pp.279-303.
 - 15) 이석형, 광승진, “FRAD 개념 모형 기반의 학술논문 선거데이터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2011), pp.235-257.

II. 전거제어 관련 동향

1. 전거제어 개념

1) 전거제어의 정의

전통적인 의미의 전거제어는 표목 혹은 접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름, 서명, 주제명의 전거형이 일관성 있게 사용되고 유지되도록 모든 가능한 표현을 찾아내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전거형을 결정하고 상호간에 연결하여 전거데이터와 서지데이터의 통일성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이러한 전통적인 전거제어는 인터넷과 시맨틱웹으로 인해 확장되어 일부에서는 전거제어를 접근점제어, 클러스터표목이라고 정의하며, 전거제어의 기능을 데이터베이스의 질적 통제를 위한 것으로 서지데이터의 조직에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정보검색에서 전거제어의 기능을 통제어휘의 역할 혹은 검색에서 정확률을 증대시키는 어휘통제로 보는¹⁷⁾ 등 전거제어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전거작업의 기능(목적)은 첫째, 목록자가 표목과 이형의 형식 결정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다. 표목의 일관된 형식을 통해 도서관에 이미 소장된 자료의 재목록이나 재구매를 방지하고, 이용자 측면에서 전거표목의 형식을 참조할 수 있고, 검색시 저작을 집중시켜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시켜준다. 둘째, 전거표목과 참조형을 문서화하여, 목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셋째, 목록자의 전거작업을 문서화한다.¹⁸⁾

최근 온라인목록에서 전거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목록과정에서 데이터의 품질은 전거레코드의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거데이터의 질이 높아질수록 정보와 검색어를 잘 매칭하여 정보 접근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¹⁹⁾ 또한 전거통제를 갖춘 시스템은 그렇지 못한 시스템보다 정확률과 재현율이 우수하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웹검색에 전거제어가 적용된다면 검색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²⁰⁾

2) 전거제어의 변화

컴퓨터의 도입, 온라인목록, 웹검색 등은 전거제어의 개념과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서지레코드에 전거와 연계된 코드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서지와 전거파일 간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16) 이지원, 김태수, 전거논문, p.230.

17) A. G. Taylor, "Teaching authority control," *CCQ*, Vol.38, No.3-4(2004), pp.47-48.

18) B. B. Tillett, "Authority control: state of the art and new perspectives," *CCQ*, Vol.38, No.3-4(2004), pp.27-28.

19) J. Weber, "LEAF: Linking and Exploring Authority Files," *CCQ*, Vol.38, No.3-4(2004), p.228.

20) M. Gorman, "Authority control in the context of bibliographic control in the electronic environment," *CCQ*, Vol.38, No.3-4(2004), pp.17-18.

서지레코드 디스플레이시 전거형식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전거와 모든 관련된 서지레코드 내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표목과 참조를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 물론 전거와 서지레코드가 연계되지 않은 시스템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전거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시스템은 전거레코드 형식과 비교해 서지내 입력된 형식을 매칭하여 표목을 확인하며 이는 전거작업 자동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²¹⁾

둘째, 전거제어를 위한 전거레코드 작성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어 국가 혹은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국가 협력프로그램인 NACO(Name Authority Cooperative project)는 전거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전거작업을 공유할 수 있었다. LEAF는 유럽에서 구축된 전거데이터로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등의 여러 제공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가 중앙서버에 저장되고, 하베스팅을 통해 이용자 검색시마다 새로운 데이터가 업로드된다.²²⁾

셋째, 전거제어의 핵심개념인 전거형과 이형의 구분에 관해 견해를 달리한 이론이 제기되었다. 동일 접근점의 다양한 형식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면 전거형의 선정이나 유지 과정없이 그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즉 서지레코드의 어떠한 접근점도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에서 접근점에 대한 다양한 형식들이 연결만 되어 있다면 전거형과 이형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전거형의 개념을 배제하고 가능한 모든 접근점을 대상으로 하는 연결 작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²³⁾ 전거레코드를 생산·갱신하고, 상호참조를 제공하는 전통적 전거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사서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전거가 이용자를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전거파일을 개방하여 시맨틱웹을 지원해야 한다. 미래의 전거 개념은 유일한 전거형이 아닌 개체의 여러 이름 형식을 제어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개체의 이름에 대한 모든 이형을 통제할 때, 서지레코드와 연결할 때 이용자에게 해당 이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가 디스플레이 형식을 선택하면 이에 맞는 언어의 표목이 화면에 출력될 것이다.²⁴⁾

2. 전거제어 원칙 ICP 2009

세계서지제어(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UBC)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전거형접근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국제목록원칙 2009에서는 각 국가의 언어 환경에 맞는 고유한 전거형접근점을 인정하고 있다. 원칙에서는 전거형과 이형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전거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한 나라 내에서도 기관에 맞는 전거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Tillett, *op. cit.*, p.28.

22) J. Weber, *op. cit.*, p.230.

23) 이지원, 김태수, 전계논문, p.230.

24) Tillett, *op. cit.*, pp.29-30.

첫째, 전거제어에 관해 국가별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FRBR, FRAD를 구현하도록 한다.

둘째,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를 검색하는 접근점을 제어형접근점과 비제어형접근점으로 구분하고, 제어형접근점을 전거형과 이형으로 구분하며, 제어형접근점은 서지레코드를 모으기 위한 일관성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전거형접근점은 표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원문의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저작의 구현형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원문의 언어나 문자가 해당 목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목록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나 문자 중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을 근거로 한다. 단 원문의 언어와 문자를 전거형이나 이형에 기술해야 하고, 번자가 필요시 국제적인 문자변환 표준을 따르도록 한다.

넷째, 전거형접근점 선정시 구현형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이름이거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것으로 목록이용자에게 적합하여 널리 인정되는 이름(관용명)의 사용을 권고한다.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접근점, 저작/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이 채택되도록 한다.

다섯째, 전거형접근점의 이름 형식은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것으로 개인명인 경우 개인과 주로 관련된, 가족명인 경우 가족명과 주로 관련된 국가나 언어의 관행을 따르도록 한다. 단체명은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순서대로 한다. 저작/표현형의 이름형식은 독립된 표제이거나 저작자의 전거형접근점이 연계된 표제일 수 있다.²⁵⁾

종합하면, 국제목록원칙 2009는 전거형접근점의 선정과 이름 형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전거형접근점은 구현형에 자주 나타나는 이름이거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것으로 목록이용자에게 널리 인정되는 관용명을 선정하고, 이름의 형식은 개인이 주로 관련된 국가의 언어 관행에 따라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이것이 어려운 경우 목록이용자에게 적합한 언어를 채택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전세계 단일의 전거형 접근점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언어나 문화적 관행을 존중해 전거형접근점의 다양성을 인정한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전거형접근점은 VIAF를 통해 세계서지통정으로 제어될 수 있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거형접근점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적인 서지제어가 가능할 것이다.²⁶⁾

위 개념을 기관별로 전거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국내 도서관 환경에 적용한다면, 동일 국가 내에서 단일한 전거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별로 기 구축된 다양한 전거형접근점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현재 구축한 전거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단일 도서관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언어나 스크립트로 전거형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5) IME ICC,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ing Principles* 2009, [cited 2011, 10, 2].

26) 이미화, "국제목록원칙 2009 제정에 따른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2호(2012, 5), p.270.

3. 전거제어 개념모델 FRAD

1) 전거제어 구조

FRAD의 개인, 가족, 단체,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념, 대상, 사건, 장소와 같은 모든 개체는 여러 이름을 가진다. 여러 이름은 제어형접근점의 기초가 되며, 제어형접근점에 속하는 이름 중 전거형과 이형은 서지를 작성하는 국가 혹은 기관의 목록규칙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이는 국제목록원칙 2009에서 제시한 국가의 언어상황을 반영한 전거형접근점의 이름 형식 선정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제어형접근점에 속하는 전거형과 이형의 선정과 형식은 도서관이 속한 국가 및 기관, 목록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2) 전거데이터 기술 요소

FRAD에서 전거제어를 위한 개체의 속성 기술이 매우 상세하다. FRAD 개체 중 개인의 속성은 개인과 연계된 날짜, 개인의 칭호, 성별, 탄생지, 사망지, 국가, 거주지, 단체, 주소, 언어, 활동분야, 직업, 전기/역사, 기타정보 등이다. 이는 생몰년을 중심으로 기술했던 기존 전거데이터 보다 더욱 세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상세한 데이터 기술은 이용자의 정보검색에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이용자는 전거데이터에 입력된 개인을 단순히 생몰년으로 구분하기보다 직업, 소속기관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식별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일명의 개인이 있는 경우 생몰년 보다는 직업, 활동분야가 개인을 구분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전거데이터 구축을 위해 FRAD에서 제시한 개체의 속성이 전거MARC에 기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세한 요소를 단위도서관에서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이 더욱더 요구된다.

3) 이름간의 관계 기술

FRAD에서는 전거형간, 전거형과 이형간 다양한 이름간의 관계를 제시한다. 개인과 개인의 전거형접근점 간의 관계에는 필명, 속명, 종교, 공무, 한징, 협력, 형제, 부모자식의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이상한 나라 엘리스'의 저자인 'Carroll, Lewis'는 수학자로서의 저작에서 'Dodgson, Charles Lutwidge'란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이 2개의 이름은 각각 전거형으로 사용되며, 상호간에는 도보라 참조로 연결되지만 보다 구체적인 관계는 필명관계이다.

한 개인의 여러 이름간의 관계는 전거형과 이형간의 관계이며 이름과 이름 간의 관계이다. 여기에는 이전이름, 이후이름, 대체언어형, 기타 이형이름 등 동일인의 여러 이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광수, 'Yi, Kwang-su' 'Lee, Kwang Soo'는 동일인의 전거형과 이형간의 보라참조 관계 이면서 대체언어관계 혹은 이형이름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유기적인 전거제어가 가능할 것이다.

4. 국제전거제어를 위한 VIAF

세계서지통정의 개념이 변화하면서 전거제어에서 이용자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즉 중국인은 라틴어로 쓰여진 공자라는 이름 대신 중국어로 기술된 이름을 선호하며, 일본인과 한국인도 각각 자국의 언어로 된 표목을 원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서지기관은 과거와 같이 전세계 통일된 표목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맞는 전거레코드를 만들고, 이를 VIAF와 연계한다. 국가서지기관의 전거파일의 전거형식과 다른 국가의 형식이 VIAF로 연계되어 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언어와 스크립트로 표목을 출력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이용자의 국가 및 문화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목록에서 사용되는 표목의 전거형식과 참조의 연결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²⁷⁾

VIAF는 2002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단계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개인명에 대한 기존 전거레코드를 연계하는 것으로 OCLC 매칭알고리즘을 통해 LCNAF와 DDB PND(Personal Name Authority)의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를 테스트하였다. 2단계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여러 서버간 링크를 구축하였고, 3단계에서는 OAI 프로토콜을 이용해 테스트하였다. 4단계는 최종이용자가 선호하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최종이용자 디스플레이를 테스트하는 것이다.²⁸⁾ 현재 VIAF에 Library of Congress, Deutsche Nationalbibliothek, Bibliotheque national de France, OCLC 등의 여러 국가도서관이 협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VIAF는 여러 도서관의 전거명이 웹에서 자유롭게 이용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며, 동일한 개인과 단체의 여러 이름을 연계하여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리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VIAF 서비스의 목적은 국가 및 지역적 수준에서 전거레코드의 연계를 위한 것이며, 둘째, 전거형식에서 국가와 지역에 따른 다양한 표목의 상호존재 인정과 채택언어, 스크립트, 스펠링에서 다양성의 요구를 지원함으로써 세계서지통정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출현할 시맨틱웹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²⁹⁾

VIAF에서 전거데이터를 검색하면 각 국가별로 전거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를 클릭하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거형과 이형을 볼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Shakespeare, William'을 검색하면 채택형(preferred forms)으로 여러 국가의 전거형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해당 국가의 언어에 준하고 있다. 채택형 중 하나를 상세보기하면 전거형이 제시되고, 여러 이형이 나열되어 있다.³⁰⁾ 이는 해당 국가의 목록규칙과 특성에 따른 전거형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며 국가별 전거형은 VIAF 식별정보로 링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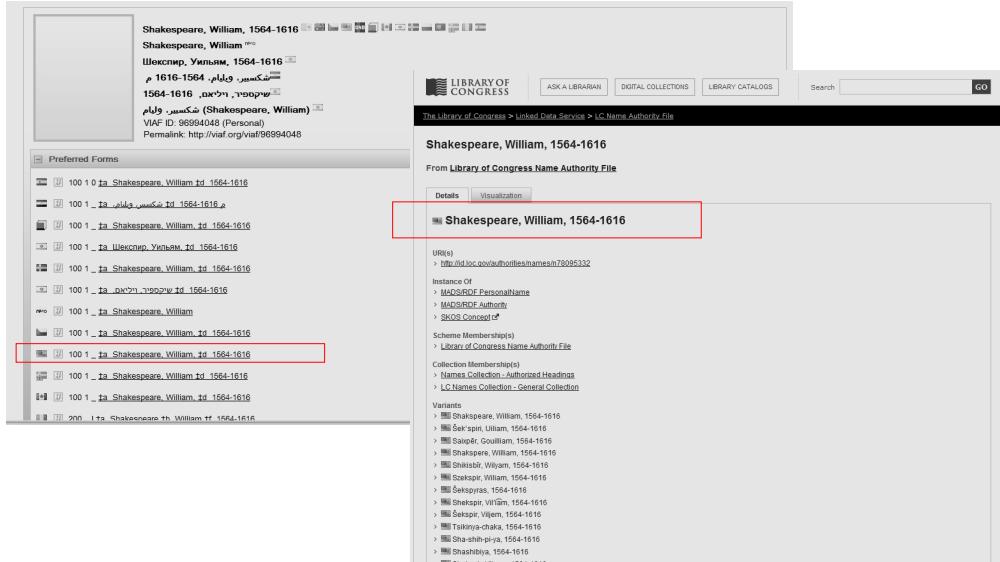
27) *Ibid.*

28) R. Bennett, C. Hengel-Dittrich, E. O'Neill & B. Tillett. "VIAF(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Linking Die Deutsche Bibliothek and Library of Congress Name Authority Files," *IFLA Conference Proceedings*, 2006, p.4.

29) OCLC, "Expanding the concept of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 VIAF," 2009, [cited 2011. 10. 2].

30) OCLC, "VIAF," <<http://viaf.org/>> [cited 2012. 9. 10].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



<그림 1> VIAF 검색화면

2장에서는 전거제어의 개념과 전거제어 원칙으로 ICP 2009, 전거제어 개념모델 FRAD, 세계서지 통정을 위한 VIAF를 살펴보았다. 새로운 전거 개념은 전세계적으로 단일한 전거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다양한 전거형을 인정하고 이를 연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별로 자국의 목록 규칙과 전거 규칙에 따라 전거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거제어 방식은 전세계 뿐만 아니라 국내와 같은 단일 국가의 전거제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도서관마다 다양한 전거형을 인정하고, 각 기관마다 기관에 맞는 전거형을 유지하고, 이를 연계하여 협력적인 전거제어가 가능하다.

Ⅲ. 대학도서관 전거데이터 구축 및 미구축 기관 현황 분석

1. 전거데이터 구축 기관 분석

KERIS종합목록표준화분과위원회 소속 대학도서관 중 전거레코드를 구축하는 4개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입력포맷, 전거대상, 자료유형, 전거데이터 구축건수(전거표목), 전거레코드 생성기준, 참조 정보원, 서지레코드와 연계, 표목, 이형, 추가기술정보, 표목형식, 이형의 대상, 검색에서 활용, 전거 관련 문제점에 관해 설문하였다. 이를 통해 전거레코드의 구축 현황과 전거 형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표 1〉 참조).

〈표 1〉 전거레코드 구축 현황

항목	A 대학	B 대학	C 대학	D 대학
입력포맷	MARC 21	KORMARC	MARC 21	KORMARC/MARC21
전거대상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총서명, 통일서명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 서명은 미구축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통일서명, 총서명	개인명, 단체명, 총서명, 통일서명, 주제명
자료유형	도서, 비도서, 학위논문 등 모든 자료 대상	단행본, 비도서, 연속간행물 등 모든 실물자료 대상 * 온라인 제외	단행본이 주요 대상 * 학위논문은 주후 자료 발간시 소급 작성	MARC으로 작성하는 모든 자료 대상
전거데이터구축 건수 (전거포목)	450,000건	648,945건	230,000건	170,000건
전거레코드 생성기준	1xx란 있어도 작성 (참조포목이 없어도 작성)	참조포목이 있는 경우 작성	참조포목이 있는 경우 작성 (단, 개인명의 경우 생물년, 한자명을 알 수 있는 경우 참조포목이 없어도 작성)	참조포목이 있는 경우 작성
참조정보원	LC, OCLC, NACSIS,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KRI) 등	LC, OCLC, NII, 기타 인물정보 참조	LC name	LC name, NACSIS, OCLC
서지레코드와 연계	서지레코드의 전거대상요소가 내부적으로 전거제어 번호와 연결됨.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간 별도의 링크 정보 없이 포목으로 일치 여부 확인	서지레코드의 전거대상요소가 전거레코드의 고유전거제어번호와 연결됨.	전거레코드와 서지레코드 연계
전거형 기술내용	이름, 생물년	이름, 한자, 생물년 * 동양인명은 생물년을 사용하지 않음. * 서양인명의 경우에는 LC Name을 참고해 생물년 있음	이름, 한자, 생물년	이름, 한자, 생물년, 기타정보
이형 기술내용	전거형과 동일	전거형과 동일	전거형과 동일	전거형과 동일
추가기술 내용	저작명 (670 태그) 직업 정보 (678 태그)	저작명 (670 필드) 명칭 변경 내역 등 이형에 대한 추가 (667 필드)	678 필드에 주제분야, 학력, 경력의 순서로 저자관련 정보 수록	670 678
전거형 일부서 중국어 서양서	국내서	한글명	한글명	한글명
	일부서	로마자 표기(수정 Hepburn식)	한자명의 한글음	한자명의 한글음
	중국어	로마자 표기(Pinyin식)	한자명의 한글음	한자명의 한글음
	서양서	로마자 표기	로마자 표기	로마자 표기
이형의 대상	소장된 장서 내에서 이형 기술	일본인명 - 가나 표기, 수정 Hepburn식 로마자 표기, 한글음 표기 중국인명 - Pinyin식 로마자 표기 및 한글음 표기 그 외 실물 내 이형 기술	소장된 장서 내에서 이형 기술	소장된 장서에 기술된 것 기록(단, 대충적으로 사용된 이름이 있는 경우는 참조정보원에서 확인 후 채기)
검색에서 활용 방식	검색시 전거데이터 활용 검색 후 패스트네이게이션으로 재검색	검색용 시스템으로 서지데이터 포맷 시 진거 데이터를 참조하여 전거 데이터 내 참조형용 모두 서지데이터의 접근점으로 포함	검색시 전거데이터 활용 검색한 자자명은 전거시스템에서 검색하고, 해당하는 포목으로 재검색해 결과 제공	저자, 서명 검색시 모두 활용하고 있음. (전거 확장 검색)
전거관련 문제점	사서는 포목 작성시 참조정보 부족(한국인 생물년 등) 이용자는 생물년만으로 원하는 자자를 접근하기 어려움	동양인 허용 678 필드 수록 정보 부족	비용과 시간 소요 참조할 국가 소요 동양인명 포목작성시 필요한 목록규칙 부재	KORMARC 전거를 사용하는데 통합MARC은 \$17가 없는 등 서지MARC과 전거MARC 사이의 불일치가 있음.

1) 입력포맷

전거포맷으로 2개 도서관은 MARC21 전거포맷용을, 1개 도서관은 KORMARC 전거통제용을, 나머지 1개 도서관은 KORMARC 전거통제용과 MARC21 전거통제용을 같이 사용하였다. 전거레코드를 구축하는 기관마다 사용하는 전거포맷이 다르고, 서브필드 기술내용에도 차이가 있었다.

2) 전거대상, 자료유형, 전거데이터 구축건수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총서명, 통일서명, 주제명의 전거대상 중 개인명, 단체명은 4개 기관 모두 구축하였다. 총서명, 통일서명, 회의명은 3개 기관이 구축하였고, 1개 기관에서는 주제명도 구축하였다.

자료유형별로는 도서관에 입수되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기관이 2개 기관이었으며, 온라인자원을 제외하는 곳이 1개 기관, 온라인자원과 비도서자료를 제외하는 곳이 1개 기관이었다. C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논문 저자는 전거레코드를 생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석사학위 논문 저자가 다른 저작을 발표할 경우 전거레코드를 생성해 연결해주었다.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출판된 자료나 비도서는 전거레코드를 구축하지 않는 등 자료유형별로 전거구축 여부가 달랐다. 전거데이터 구축 건수도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65만 건을 구축한 곳에서부터 17만건을 구축한 기관까지 다양하였다. 65만 건을 구축한 기관의 경우 과거 시스템에서 서지데이터 저장 시 전거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저장을 할 수 없어 참조형이 없는 경우에도 전거데이터를 생성하였다.

3) 전거레코드 생성기준, 참조정보원, 서지레코드와 연계

전거데이터의 생성 기준은 기본적으로 참조표목이 있는 경우 작성하였으나 1개 기관만은 참조표목이 없어도 작성하고 있었다. 다른 1개 기관은 기본적으로 참조표목이 있는 경우 작성하지만, 참조표목이 없어도 개인명의 경우 생몰년, 한자명을 알 수 있는 경우 전거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전거데이터 작성시 참조정보원은 대부분이 LC Name Authority File (LCNAF), OCLC, NACSIS였고,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를 이용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전거레코드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지레코드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만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거표목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서지레코드의 표목 변경이 불가능하다. 3개 기관은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의 제어번호가 상호 연결되어 전거표목이 변경될 경우 일괄 수정이 가능하였다. 1개 기관은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간의 링크 정보없이 표목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전거표목 변경시 일괄 수정이 불가능하였다.

4) 전거형, 이형, 추가기술 내용

전거형에 기술하는 내용은 이름, 한자, 생몰년이며, 이형은 표목과 동일한 기술 내용이며, 추가기술 정보는 정보원과 전기 및 역사 정보에 관한 사항이었다.

A대학에서는 표목의 정보로 이름과 생몰년만을 사용하고,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형에도 이름과

생물년만을 사용하였으며, 추가기술 정보로 정보원을 670, 전기 및 역사정보를 678에 기술하였다. B대학의 경우는 동양인명의 경우 생물년을 사용하지 않았고, 만일 한자가 같아 동명이인을 구분하지 못하더라도 생물년을 추가하지 않았다. 반면 서양인명은 외국데이터에 이미 생물년이 있어 이를 그대로 채기하였다. 이형의 정보는 표목과 같이 이름, 한자, 생물년을 사용하였고, 추가기술정보로 정보원을 670에 기술하였다. C대학에서는 이름, 한자명, 생물년을 모두 사용하였고, 추가정보로 678에 주제분야, 학력, 경력 등의 순서로 저자 관련 정보를 수록하였다. D대학에서는 표목으로 이름, 한자, 생물년, 기타 정보를 입력하고, 이형도 전거표목과 동일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정보원을 670, 전기 및 역사 정보를 678에 기술하였다.

5) 전거형

국내서의 경우 4개 기관 모두 한글을 전거형으로 선정하여 '이광수'로 동일한 형식을 채택하였다. 국내 인명의 경우 전거형 선정시 가장 관용적으로 알려진 저자명과 그 형식을 전거형으로 사용하였다.

일본서와 중국서의 경우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일서의 경우 <표 2>와 같이 한자명의 한글 음독을 채택한 곳이 3곳이고,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를 채택한 곳이 1곳이었다. A대학은 수정 Hepburn식 로마자 표기인 'Miura, Ayako'를 사용하였다. D대학은 일본인의 성명 구분이 혼란스러워 성과 이름 사이에 스페이스를 삽입하였다.

<표 2> 일본인명 전거형과 이형

	전거형	이형	비고
A 대학	100 ▼aMiura, Ayako, ▼d1922-1999	400 ▼aMiura, Ayako, ▼d1922-1999 400 ▼aSan-p'u, Ling-tzu, ▼d1922-1999 400 ▼a三浦綾子, ▼d1922-1999 400 ▼a삼포릉자, ▼d1922-1999 400 ▼a삼포능자, ▼d1922-1999 400 ▼a미후라, 아야코, ▼d1922-1999 400 ▼a미우라, 아야코, ▼d1922-1999 400 ▼a미우라, 아야코, ▼d1922-1999	670 ▼aAuthor's Aisuru koto shinzuru koto, 1967: ▼bt.p.(三浦綾子) 670 ▼a鹽狩峠 : ▼bt.p. 670 ▼a양치는 언덕, 1977 : ▼bt.p.(미우라 아야코 지음) 670 ▼a歸りこぬ風 : ▼bt.p. 678 ▼ad. 1999.
B 대학	100 ▼a삼포능자 ▼h三浦綾子	400 ▼a미우라, 아야코 400 ▼a미우라, 아야코 400 ▼aミウラ, アヤコ 400 ▼aMiura, Ayako 400 ▼a삼포릉자	670 ▼a삼포능자. 그래도 내일은 온다, 1990 670 ▼a삼포능자. 빙점, 1990 670 ▼a삼포능자. 속 빙점, 1990
C 대학	100 ▼a 삼포능자 ▼q 三浦綾子, ▼d 1922-1999.	400 ▼a미우라 아야코 400 ▼a미우라 아야코 400 ▼aMiura, Ayako 400 ▼aみうら あやこ	678 ▼a문학(일본) ; 저서: 빙점, 설령 등
D 대학	100 ▼a 삼포 능자= ▼h 三浦綾子, ▼d 1922-1999	400 ▼a三浦綾子, ▼d 1922-1999 400 ▼a삼포 능자, ▼d 1922-1999 400 ▼a미우라 아야코, ▼d 1922-1999 400 ▼a미우라 아야코, ▼d 1922-1999 400 ▼aミウラ, アヤコ, ▼d 1922-1999 400 ▼aMiura, Ayako, ▼d 1922-1999 400 ▼aAyako Miura, ▼d 1922-1999	670 ▼a어떤 가을 날: ▼b t.p.

중국인명의 경우도 '모택동'에 대한 전거형으로 한글 독음한 것을 채택한 곳이 3곳이고, 1개 기관은 한자의 Pinyin식 로마자 표기를 채택하였다(<표 3> 참조).

서양인명의 경우 4개 기관 모두 전거형으로 원문의 언어인 영문로마자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표 3〉 중국인명 전거형과 이형

	전거형	이형	비고
A 대학	100 ▼aMao, Zedong, ▼d1893-1976	400 1 ▼aMao, Tse-tung, ▼d1893-1976 400 1 ▼aMao, Tze-tung, ▼d1893-1976 400 1 ▼aMao, Tsū Toung, ▼d1893-1976 400 0 ▼aErshiba hua sheng, ▼d1893-1976 400 1 ▼aMau, Tze-toeng, ▼d1893-1976 400 1 ▼aMao, Jun-chih, ▼d1893-1976 400 1 ▼aLi, Te-sheng, ▼d1893-1976 400 1 ▼aMao, Ze Dong, ▼d1893-1976 400 0 ▼aMaozedong, ▼d1893-1976 400 1 ▼a毛澤東, ▼d1893-1976 400 1 ▼a모택동, ▼d1893-1976 400 1 ▼a마오쩌둥, ▼d1893-1976 400 1 ▼a마오쩌둥, ▼d1893-1976 400 1 ▼a마오쩌둥, ▼d1893-1976 400 1 ▼a마오쩌둥, ▼d1893-1976	670 ▼aHis Mao Tse-tung chih lun ... 1958. 670 ▼aLi, T. Poems, 1989: ▼bt.p. (Mao Zetong) 670 ▼a(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마오 : ▼bt.p. 670 ▼a마오의 무전 여행 : ▼bt.p. 670 ▼a毛澤東自傳珍穉書影圖錄 : ▼bt.p. 670 ▼a마오의 독서생활 : ▼bt.p.
B 대학	100 ▼a모택동 ▼h毛澤東	400 1 ▼a마오, 쩌퉁 400 1 ▼a마오, 쩌퉁 400 1 ▼a마오, 쩌퉁 ▼7모택동 毛澤東 400 1 ▼aMao, Ze-dong, ▼d1893-1976 400 1 ▼aMao, Tse-tung, ▼d1893-1976	670 ▼a모택동. 毛澤東選集, 第1卷, 1953 670 ▼aLi, Tien-min. Liu Shao-chi, 1975
C 대학	100 ▼a 모택동 ▼q 毛澤東, ▼d 1893-1976.	400 1 ▼a Mao, Tse-tung. 400 1 ▼a Mao, Zedong. 400 1 ▼a 마오쩌퉁 400 1 ▼a 마오쩌둥	678 ▼a 중국의 정치가, 공산주의 이론가 ; 중국공산당의 요직에서 활동하다가 중앙 제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연합정부론을 발표하였으며,
D 대학	100 ▼a 모택동= ▼h 毛澤東, ▼d 1893-1976	400 1 ▼a 毛澤東, ▼d 1893-1976 400 1 ▼a 마오 쩌퉁, ▼d 1893-1976 400 1 ▼a 마오 쩌퉁, ▼d 1893-1976 400 1 ▼a Mao, Tse Tung, ▼d 1893-1976 400 1 ▼a 모우, 탁투우, ▼d 1893-1976 400 1 ▼a Mao, Zedung, ▼d 1893-1976 400 1 ▼a Zedung Mao, ▼d 1893-1976 400 1 ▼a Tse Tung Mao, ▼d 1893-1976	

6) 이형의 대상

이형은 소장된 장서 내에서 실물자료에 바탕하여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C대학만 이 원칙을 유지하였고 나머지 대학에서는 변형해 적용하였다. A대학의 경우는 영어식 표기를 모두 기술하였다. B대학은 실물을 바탕으로 이형을 기술하지만 일본인명은 가나표기, 수정 Hepburn식 로마자 표기, 한글음 표기를 병행하였고, 중국인명은 Pinyin식 로마자 표기 및 한글음을 병행하였다. D대학은 대중적으로 사용된 이름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의 이형으로 채기하였다.

7) 검색에서 활용

구축된 전거데이터는 검색에 활용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4개 기관에서 검색시 전거데이터를 활용하였다.

A대학의 경우 검색어를 전거시스템에서 검색하여 해당하는 표목으로 재검색해 결과를 제공하였다. B대학은 업무용 시스템과 검색용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으며, 검색용 시스템으로 서지데이터 로

딩 시 전거데이터를 참조하여 전거데이터 내 참조형표목을 모두 서지데이터의 접근점으로 포함하고, 이용자 검색 시 전거데이터가 아닌 서지데이터로 바로 검색된다. C대학의 경우 검색한 저자명은 전거시스템에서 검색하고, 해당하는 표목으로 재검색해 결과를 제공하고, 전거데이터가 일정건수 이상이면 이용자에게 해당 전거데이터리스트를 보여주어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는 동명이인으로 인한 과도한 검색을 막고, 정확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거데이터와 서지데이터가 대표표목을 가지고, 이를 고유전거제어번호로 상호 연결되도록 하였다. D대학의 경우도 검색시 전거데이터를 확인하여 다양한 이형을 가진 표목을 검색결과로 제공하였다.

8) 전거 관련 문제점

전거 구축과 관련된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전거형 작성시 참조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원이 부족하며, 전거데이터 구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참고할 전거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서양인명과 달리 동양인명(일본, 중국)의 전거형 작성시 국가 전거데이터 및 목록규칙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동양서는 KORMARC으로 입력하고, 전거도 KORMARC 전거용을 사용하는데 전거와 서지MARC의 불일치가 있었다. 또한 전거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전거MARC에는 기술할 필드가 제한적이었다. 검색어를 입력한 후 생몰년만 포함한 전거리스트에서 이용자는 원하는 저자명을 선택하기 어렵다. 실제 한 기관의 이용자는 '미우라 아야코'와 '삼포능자'와 같이 이용자가 검색한 이름과 다른 이름명 제시된 경우 두 개의 이름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서에게 질문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저자의 이름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여러 이름간의 관계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기관에서 국내 인명의 전거형과 서양인명의 경우 전거형이 거의 일치하였으나, 일본 인명, 중국 인명은 기관에 따라서 영어식 표기, 한글로 독음한 표기를 사용하는 등 전거형이 표준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관별 차이는 국가적인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기관 자체적인 규칙을 적용한 것이었으며, 구축 기관은 현행 전거데이터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2. 전거데이터 미구축 기관 분석

장서규모 50만권 이상되는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는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자메일 및 인편으로 30개의 설문을 배부하였으며, 28개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는 전거데이터 미구축의 원인과 앞으로 전거데이터 구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회수된 28개 설문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거데이터를 구축하지 않는 기관의 목록담당인력은 2명 이하인 곳이 전체 72%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거데이터 미구축에 큰 영향 요인이라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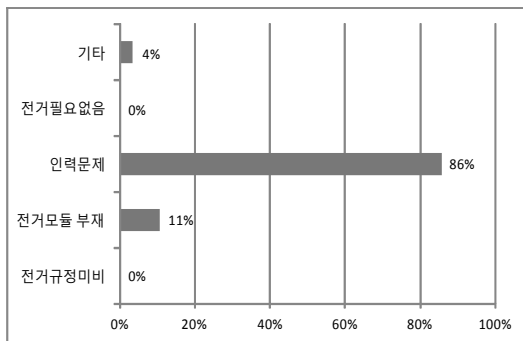
1) 서지데이터 구축 방법

서지데이터 구축 방법은 원목보다는 KERIS 종합목록 다운로드 50%, 원목+다운로드+업체납품의 복합적 방법으로 구축하는 기관이 39%, 도서납품업체에 의존하는 곳이 11%를 차지하였다. 이는 대학도서관에서 서지데이터 구축 시 종합목록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선거데이터 구축에 있어서도 협력을 바탕으로 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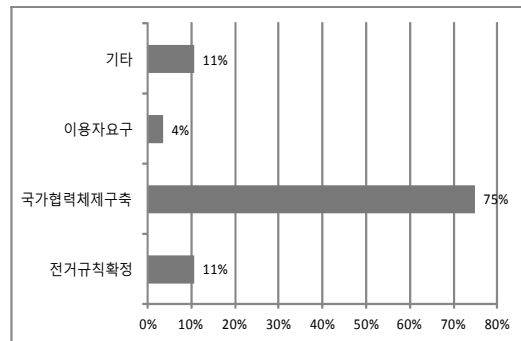
2) 선거데이터 미구축 원인 및 구축 계획

선거데이터 미구축 이유는 인력 부족이 86%로 가장 큰 원인이었고, 다음은 도서관전산시스템 내에 선거구축 모듈의 부재가 11%를 차지하였다. 선거데이터 미구축 기관의 목록담당자는 2명 이하로 매우 낮았으며, 이는 선거데이터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그림 2〉 참조).

선거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전체가 선거데이터 구축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선거데이터 구축을 고려한 기관은 겨우 39%에 불과하였으며, 57%는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선거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였으나 이를 구축으로까지 연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림 2〉 선거데이터 미구축 원인



〈그림 3〉 선거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건

3) 선거데이터 구축 선행조건

선거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가장 필수조건으로 국가협력체제구축이 75%, 선거규칙 확정 11%, 기타 11%, 이용자 요구 4%로 나타났다. 미구축기관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거데이터를 구축할 수 없어 국가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가장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았다(〈그림 3〉 참조).

4) 선거데이터 기능에 대한 인식

선거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 자료집중기능이 75%, 표목의 일관성유지 14%, 검색에서 정확한 표목 선정이 11%로 나타났다.

전거데이터 미구축 기관에서 전거데이터 구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적인 협력을 통한 전거데이터 구축이었다. 사서들은 전거의 필요성, 전거제어의 기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나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전거데이터 구축이 어려웠다. 따라서 전거구축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국가협력체제 마련이 시급하였다.

3. 종합분석

전거데이터 구축기관과 미구축기관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거제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전거데이터를 구축하지 않는 도서관과 구축 도서관 모두 전거형 규칙의 마련을 요구하였다. 실질적인 전거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전거형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지침이 필요하고, 국가의 전거형 규칙을 참조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전거규칙을 기반으로 자관의 요구에 맞는 규칙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도서관에서조차 인력제한과 전거데이터 구축 업무의 과중으로 모든 자원의 전거데이터를 구축할 수 없었다. 도서관에서 주로 개인명과 단체명을 전거데이터로 구축하였고, 통일서명, 총서명, 주제명은 기관에 따라 구축 여부가 달랐다. 뿐만 아니라 단행본자료는 전거로 구축하지만 온라인자료나 비도서자료는 전거데이터를 구축하지 않는 등 자료유형에 따라서도 전거데이터 구축이 달랐다.

또한, 전거데이터를 구축하지 않는 도서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만일 국가적인 협력체제가 마련되면 전거데이터 구축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거제어를 위한 국가협력체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전거데이터 구축기관에서 국가의 전거규칙이 없어 자관의 상황에 맞게 전거형을 채택하였다. 국내인명의 경우 한글이름으로, 서양서의 경우 로마자로 전거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국자료와 일본자료의 경우에는 한자명의 한글 음독을 전거형으로 도입한 기관과 영어번자 표기를 사용한 기관으로 나뉘었다. 이는 전거관련 국가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기관에 맞게 전거데이터를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기 구축된 전거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하였다.

또한, 이용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서관의 이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전거형으로 목록데이터가 제공되기를 원할 것이다. 일본인 이용자는 일본명으로 전거형이 제시되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전거제어는 궁극적으로 이용자가 선호하는 형식으로 디스플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서관 이용자는 목록 검색결과에 서로 다른 저자인데 검색되었다고 검색오류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촌상춘수'와 '무라카미하루키', '삼포농자'와 '미우라 아야코'와 같은 경우는 일본인명 한자독음명과 일본인명 일본어독음으로 달리 표현되는 동일한 저자명이지만 상호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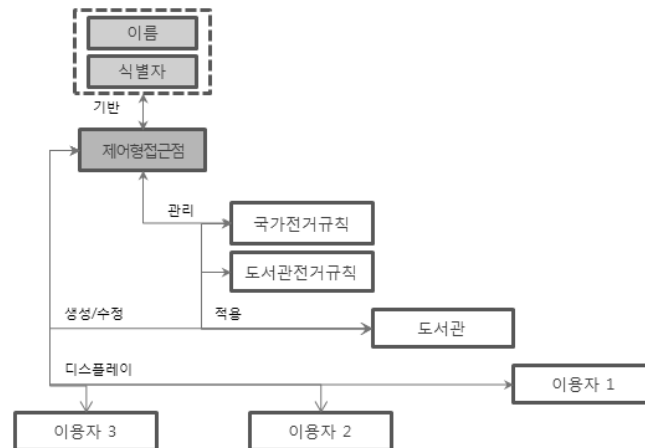
나 설명적 어구가 없어 동일인임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용자를 위해 다양한 관계와 설명적인 어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IV. 기관 및 이용자 중심의 전거제어 방안

1. 전거제어 기본 모형

전거데이터 구축도서관과 미구축도서관의 현황과 국제목록원칙 2009, FRAD, VIAF의 전거방안을 고려한 전거제어 모형은 개별 도서관의 다양한 전거형을 인정하는 협력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FRAD 기본 개념에 이용자를 포함시켜 확장한 <그림 4>와 같이 개별 도서관은 국가 전거규칙을 기반으로 자관의 특성을 반영한 전거규칙을 마련하여 전거형과 이형의 제어형접근점을 구축한다. 기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거형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모든 기관의 전거형이 식별기호로 상호 연계되어 전거데이터의 협력이 가능하다. 만일 도서관에서 전거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거데이터를 변경하면 서지데이터내의 전거형은 일괄 수정될 수 있다.



<그림 4> 기관 및 이용자 선호 전거제어

이러한 모형에서 기관의 기본 디스플레이는 도서관의 전거규칙에 기반하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자 자신의 언어 환경에 따른 전거형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면 선호하는 형식으로 전거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전거형은 한글이지만 중국인이 중국어 형식의 전거데이터 디스플레이를 채택한다면 중국어 전거형이 제시되고, 영어권 사용자에게는 영어가 제시될 것이다.

2. 전거데이터 입력 요소 확장

도서관 및 이용자 중심의 전거제어를 위해 이름 개체의 다양한 속성이 추가적으로 기술되어야 하고, 이용자 측면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관계 기술의 상세화가 필요하다.

첫째, 전통적인 전거데이터를 통해 인명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FRAD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세한 데이터 속성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어형접근점의 유형, 제어형접근점의 형태, 제어형접근점의 목표 이용, 기본접근점의 언어, 목록언어, 기본접근점의 스크립트, 목록 스크립트, 목록의 문자체계, 제어형접근점의 정보원, 기본접근점 등이다.

둘째, 전거형-전거형, 전거형-이형, 이형-이형 간에 다양한 관계 속성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검색에서 제시된 다양한 이름명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용자 중심의 전거형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 즉 한글형, 한글의 영어번자표기, 일본어, 일본어의 한글번자 등 모든 이름명에 속성을 기술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전거형으로 디스플레이가 가능할 것이다.

〈표 4〉 이름명 특성기술

	표현언어	번자	이름유형
100 ▼a이광수	한글		
400 ▼a李光洙	한자		
400 ▼a리광수	한글		
400 ▼aYi, Kwang-su	영어	한글이름의 영어번자	
400 ▼aLee, Kwang Soo	영어	한글이름의 영어번자	
400 ▼aKwang Su Lee	영어	한글이름의 영어번자	
400 ▼aI, Govnag-Su	영어	한글이름의 영어번자	
400 ▼a이보경	한글		아명
400 ▼a李寶鏡	한자		아명
400 ▼aカヤマ, ミツロウ	일본어		일본이름
400 ▼aKayama, Mitsurō	영어	일본이름의 영어번자	일본이름
400 ▼a가야마, 미쓰로	한글	일본이름의 한글번자	일본이름
400 ▼a카야마 미쓰로	한글		일본이름
400 ▼a香山光郎	한자	일본이름의 한자명	일본이름
400 ▼a향산광랑	한글	일본이름의 한자명 한글번자	일본이름
400 ▼a춘원	한글		호
400 ▼a春園	한자		호
400 ▼a경서학인	한글		익명
400 ▼a고주	한글		이칭
400 ▼a외배	한글		이칭
400 ▼a장백산인	한글		이칭
400 ▼aЛи, Г в а н с у	러시아	한글이름의 러시아어번자	

〈표 4〉와 같이 이광수는 한글이름이지만 ‘Lee, Kwang Soo’는 한글이름의 영어번자이다. 이 두 개의 이름명은 동일인이지만 영미권 이용자는 전거형이 한글로 제시되기 보다는 영어형식이 선호될

것이다. 따라서 표현언어, 번자, 이름유형과 같이 이름명의 특성을 추가로 기술한다면 이용자 선호 형식의 전거형 디스플레이가 가능할 것이다.

3. 전거제어 규칙 개발

전거제어를 위해 제어형접근점, 전거형, 이형에 관한 규칙이 필요하다. 국가 규칙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내용이 주가 되며, 개별 도서관에서 이러한 규칙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거데이터 미구축 도서관에서는 국가의 규칙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일부 도서관에서는 국가적인 규칙을 적용하면서 자관특성을 반영한 전거제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KCR4에서는 전거형과 이형의 구분이 필요없는 접근점제어방식을 적용하여 기술 규칙만 규정하고, 접근점은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검색만을 목표로 한다면 전거형과 이형의 구분은 사실상 불필요하지만 전거제어는 검색뿐만 아니라 연관데이터를 제시하거나,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청구번호 작성에도 사용되고 있어 전거형의 개념과 형식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문헌연구에서 살펴보았던 국제목록원칙 2009, FRAD, VIAF에서도 전거형과 이형을 구분하고 있다.

4. 국가 협력기반 구축

전거데이터 구축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자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 협력체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전거형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거데이터에 구축된 내용보다 더 많은 요소가 기술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력을 기반으로 한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KERIS 전거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으나 이는 초창기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기관의 전거를 참조한 것이며 지속적인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현재 사용이 어렵다.

앞으로 국가서지기관은 자국 데이터에 대한 전거제어의 책임을 가져야 하고, 개별 도서관은 자관이 구축한 폐쇄적인 이용방식의 전거데이터에서 벗어나 협력적으로 전거데이터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국내 목록규칙에 전거에 관한 사항을 전거 MARC에서 처리하도록 제시만하고 전거제어의 방향 및 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도서관의 전거데이터 구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즉 목록규칙에서 제시된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이를 위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전거제어 현황분석과 국제적인 전거제어의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전거제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CP 2009, FRAD 개념모델, VIAF의 전거개념을 살펴보고,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도서관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구축하는 도서관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자관의 특성을 반영한 전거형의 유지가 필요하였고, 미구축기관의 경우는 국가의 전거규칙과 협력모델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ICP 2009, FRAD와 VIAF의 전거개념을 응용하여 전거형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개별 도서관의 전거형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전거제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거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은 VIAF와 같은 새로운 전거제어 개념은 전통적인 전거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즉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연구와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논의가 가능하였다. VIAF에 참석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전거제어를 바탕으로 전거데이터를 구축해 왔기에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기본에 충실한 전거데이터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거제어의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민도. “국립중앙도서관 전거파일 구축 현황과 계획.” 국가전거파일의 협력적 구축방안(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세미나, 2006), pp.99-116.
- 김태수. “전거제어시스템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회, 1998, pp.1-12.
- 도태현. “자동화 목록에서의 전거통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도서관학논집, 제18권(1991, 1), pp.217-243.
- 박선희. “대학도서관 전거파일 구축현황: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국가전거파일의 협력적 구축방안(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세미나, 2006), pp.83-95.
- 심경. “국내 공공도서관의 인명 전거제어의 현황 및 발전 방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2006, 12), pp.221-244.
- 안영희, 이성숙. “IFLA FRAD 모형이 관련 표준에 미친 영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6권 제1호(2009), pp.279-303.
- 오동근. “한국형 전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4호(2000, 12), pp.21-47.
- 윤정옥. “디지털 정보시대의 전거통제(2) : 국내 목록 데이터 베이스의 일본 학술지명과 단체명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1, 12), pp.161-175.

- 이미화. “국제목록원칙 2009 제정에 따른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2호(2012, 5), pp.261-280
- 이석형, 광승진. “FRAD 개념 모형 기반의 학술논문 전거데이터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2011), pp.235-257.
- 이지원, 김태수. “SRU 프로토콜을 이용한 접근점제어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2005, 3), pp.229-248.
- 최달현. “분담목록에서의 전거통제와 전거파일 공유.”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도서관학논집, 제25권(1997, 1), pp.257-293.
- 최석두. “무전거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5권(1993, 12), pp.233-264.
- Bennett, R, C. Hengel-Dittrich, E. O’Neill, & B. Tillett. “VIAF (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Linking Die Deutsche Bibliothek and Library of Congress Name Authority Files.” *IFLA Conference Proceedings*, 2006, pp.1-17.
- Burke, S. K. & J. Shorten. “Name authority work today: comparison of types of academic libraries.” *LRTS*, Vol.54, No.1(2009), pp.4-20.
- Gorman, M. “Authority control in the context of bibliographic control in the electronic environment.” *CCQ*, Vol.38, No.3-4(2004), pp.11-22.
- IME ICC.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ing Principles.” 2009.
〈http://www.ifla.org/files/cataloguing/icp/icp_2009-en.pdf〉 [cited 2011. 10. 2].
- Mak, L. “Issues of personal name authority control in a retrospective cataloging project.”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Vol.28(2011), pp.160-168.
- Naito, E. “Names of the far east: Japanese, Chinese, and Korean authority control.” *CCQ*, Vol.38, No.3-4(2004), pp.251-268.
- OCLC. “Expanding the concept of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 VIAF.” 2009.
〈http://www.oclc.org/services/brochures/213998usf_virtual_international_authority_file_VIAF.pdf〉 [cited 2011. 10. 2].
- OCLC. “VIAF.” 〈<http://viaf.org/>〉 [cited 2012. 9. 10].
- Taylor, A. G. “Teaching authority control.” *CCQ*, Vol.38, No.3-4(2004), pp.43-57.
- Tillett, B. B. “Authority control: state of the art and new perspectives.” *CCQ*, Vol.38, No.3-4(2004), pp.23-41.
- Weber, J. “LEAF: Linking and Exploring Authority Files.” *CCQ*, Vol.38, No.3-4(2004), pp.227-236.